

지 식 윤 리

아담 스미스는 그의 『국부론』에서 당시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에 관해서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즉, “교수들은 그 자신이 의무를 등한시하는 것을 눈감아 주는 한, 동료들이 그의 의무를 등한시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집단”이라고 말했다. 이 글은 한때 명총장이었던 캘리포니아 대학 명예총장인 클라크 커어가 그의 “지식윤리와 새 학술문화”라는 작은 논문에서 인용한 글이다. 그는 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어느 총장이 “대학교수는 유한계급의 자유를 누리고 있고”,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한다는 상세한 규정이 없이, 실지로 제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량이 많기로 아주 독특하며”,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책임있는 업무수행에서 “어떤 내면적 윤리가 각별히 더 중요해진다”고 한 말도 인용했다.

그리고보니 대학교수가 비판과 공격의 표적이 되는 것은 한국만의 또는 오늘날의 일은 아닌 것 같다. 근자에 우리 사회에서 대학과 대학교수가 자주 비판과 힐난의 도마 위에 올려지는 것도 그런 고금의 사정의 한 반복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그렇게 한 역사의 반복이라고 자위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정녕 국가의 성쇠가 대학의 활력 여하에 밀접히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한국의 대학과 대학교수사회에 어떤 각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제 이 사회의 거의 한 공통된 의식이 된 듯하다. 그런데도 대학의 변화는 극히 지지부진하다는 공통의식이 있다는 것도 답답한 현실이다.

모든 직무수행은 통제의 극과 윤리의 극 사이에서 진행된다. 공장의 직공은 근무시간, 근무요령 등 여러 통제와 규제 하에 일을 한다. 그러나 마지막 볼트 너트를 제대로 조여 놓느냐 않느냐는 그의 직업윤리에 달려 있다. 노예선의 노 젓기 노동은 끝까지 감시해야 하지만, 그게 아닌 보통의 직업노동에서는 현장의 끝까지 옆에서 통제적으로 감시할 수는 없다.

국민학교 교사도 출·퇴근시간, 교육내용, 교육방법, 기타에서 많은 규제를 받으면서 가르친다. 그러나 교실에서의 세부 교수행동마저 규제할 수는 없다. 거기부터는 교사의 직업능력과 직업윤리의 문제다. 혹 별 준비없이 아무렇게나 가르친다 해도 그것까지 규제하고 감시할 수는 없다. 거기부터는 그의 윤리의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다.

대학교수는 앞의 어떤 총장의 말대로 자율의 시간량이 많기로 독특하고, 교육활동 및 연구활동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사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규율은 적고 그의 “윤리의 자율”에 위임된 부분이 많다. 여기에 몇 가지 문제가 생긴다.

첫째는 자율의 범위가 넓은 만큼 대학교수에게는 지식의 탐구와 보급, 즉 연구와 교육에 관한 높은 윤리가 요구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아무리 대학교수라든 아무 사심이 없는 성자가 아닌 이상엔 어떤 통제나 규



한림대 총장 정 범 모

제가 완전히 없을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는 실제로 그런 직업윤리가 이행되고 있지 않은 정도에 따라 대학은 그 윤리를 재소생시키는 노력을 경주하든지 또는 새 규제를 만들든지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 다 아니라면 대학은 제 구실을 할 수 없다.

이 셋째가 지금의 한국 대학의 처지인 것만 같다. 윤리의 재소생을 위한 홍보 또는 협의의 자료로 쓰건 또는 어떤 새 규제조항을 만들기 위한 기준으로 쓰건 간에, 일정한 사명을 지닌 대학이라는 공적 기관의 대학교수로 근무하면서 지식의 연구와 교육을 수행함에 있어 도시 어떤 윤리조항들이 요구되는지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규정해 보는 것이 이 단계에서 필요하고 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휴강을 다반사로 이는 교수도 있다. 자기 일만 하고 학과 일에는 관여하지 않으려는 교수, 학생 만나는 일을 귀찮아 하는 교수, 교수 채용에서 학적 능력보다는 동창과 동향인을 선호하는 교수, 학과 운영에서 지나치게 폐쇄적인 교수, 증거 없는 주장을 마구 내뱉는 교수도 있다. 방학에도 대학 일은 많은데 그동안 으레 외국에 나가 있는 교수, 대학교수는 명예를 위한 소속일 뿐 주로 대학 밖의 위원, 자문, 세미나, 고문, 강연, '봉사'와 '정치'에 더 바쁜 교수도 있다...

하도 긴 대학기강 해의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을 도리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버릇이 우리 자신에게 깃들여 있는지도 모른다. 아예 대학교수의 '지식윤리'에 무엇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그런 자문을 하는 경우조차 별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이제 '적당히 휴강'하는 것이 절대로 정상이 아니고, 대학 밖의 일에 더 바쁜 것이 절대로 정상이 아니라는 방향으로 인식이 선다면, 대학교수의 지식윤리를 보다 넓게 개념화하고 협의하고 규정하고 '생활화'하는 구상을 어디에선가는 해 볼 때도 된 것 같다. 모든 윤리가 그렇듯 그 근본은 자율적 자각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구상이 그런 자각의 한 실마리는 될 수 있을 것이다. ■

정범모/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대학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 교수와 사범대학장, 충북대 총장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한림대 총장으로 재직중이며 한국행동과학연구소 회장, 대한민국학술원회원으로 활동중이다. 국민훈장 동백장(73년), 천원교육상(91년), 성곡학술문화상(92년) 등을 수상했으며, 주요 저서로는 「교육과 교육학」, 「미래의 선택」, 「교육난국의 해부」, 「인간교육의 회복」, 「교육의 본연을 찾아서」 외 다수가 있다.